

###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마감

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2월 8일 완료됐다.

주경 스님이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진행되는 수덕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수덕사 총무국장 효성 스님, 석정 스님이 입후보 했다.

법적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던 은해사 중앙종회의원에는 장적 스님과 덕주 스님이 재입후보했다.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각 축전이 예상된다. 후보로는 백양사 부주지 원일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호법국장 석장 스님, 백양사 사회국장 성진 스님, 前 자성과쇄선실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 스님 총 4명이 입후보했다.

사회분야는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에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장 종상 스님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2월 28일 오후 1시부터 각 교구별로 치러지며, 직능직대표선출위원회도 28일 오후 1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 ‘불국사, 석굴암’

#### 최고 인기 문화유적

#### 경북도 SNS 분석 결과

‘불국사’와 ‘석굴암’이 경북지역 최고 인기 문화유적으로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2월 11일 국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문화·유적지 인기분야에서 불국사가 최고로 꼽혔다고 밝혔다.

2위부터는 석굴암, 하회마을, 부석사, 대릉원으로 5위 안에 사찰이 3개가 속했다.

경상북도의 SNS분석은 문화 관광분야에서 최초로 분석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내 소셜미디어 자료 15억 3600만건(트위터 14억 5800만건·네이버 블로그 7800만건)을 대상으로 연이어 분석, 발생빈도 및 추이 분석 등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진행됐다.

분석보고서에는 불교문화유적이 많은 경주는 ‘문화관광’ ‘수학여행’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불교 문화 자체에 의미를 지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윤종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진화하는 월정사 단기출가

## 내년 개교 10주년... 계층별 프로그램 등 전환기 마련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의 단기출가학교는 2004년 개원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심한 일반인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전 단계인 행자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9년, 내년이면 10년을 맞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계층별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 황혼기·주부 출가학교 진행

#### 참가자들 수해 욕구 충족

#### 9년 간 1800명... 10% 출가

#### 내년 하반기 기념행사 예정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황혼기 단기 출가학교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다. 황혼기 단기출가학교는 55~70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1일까지 모집 접수를 받는다. 학교는 3월 22~28일까지 진행된다. 30~5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출가학교는 오는 8월 23~29일 열리며, 모집은 8월 7일까지다.

기존의 단기출가학교는 20~60세까지 연령 제한으로 고령자들의 참가가 어려웠다. 또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가정을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은 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의들이 끊이지 않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있다. 내년 10주년을 맞는 단기출가학교는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단기출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법철 스님은 “황혼기·주부 단기출가학교는 기존의 출가학교와는 다르게 마음을 치유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찾는 등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참선 요가,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04년 개원한 단기출가학교도 올해로 햇수로 10년, 만 9년을 맞는다. 단기출가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황혼기·주부 단기출가학교는 그 일환이며 호응이 좋으면 계층별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한 출가학교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주년 기념행사 준비도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에 열릴 기념행사에는 그간 출가학교를 다녀간 졸업생과 이를 통해 출가한 스님들을 초청해 발자취를 되짚는 형식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또한 졸업생들의 생생한 수험담을 책으로 엮어낸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단기출가학

교 체험사 가운데 실제 출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교 이후 9년여 간 1800명여가 다녀갔고 이중 10%의 인원은 출가해 수행·정진하고 있다.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간 스님(6기 졸업)은 “오래 전부터 출가의 뜻이 있었고, 단기출가학교를 통해 그 발심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단기출가학교의 커리큘럼은 실제 출가 생활 별반 다르지 않아 막연히 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된다. 출가사 감소 시대에 출가 정신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구 정토사 주지 대원 스님(18기 졸업)은 “단기출가학교 당시 불자였지만 내 자신을 거두기에 급급했다. 단기출가를 통해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방법을 알게 됐고, 출가까지 하게 됐다”며 “단기출가학교는 불교 수행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불교계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정전 60년, 불교의 평화론을 되짚다

### 조계종 2월 27일 정전 60주년 세미나 개최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맞아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가 불교의 평화론과 평화운동을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범어사가 주관하고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 평화론과 평화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2월 27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석좌교수가 ‘불교와 이웃종교의 평화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박경준 동국대 교수가 ‘불교평화의 이론적 모색’을, 유승주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평화운동의 성찰과 대안’을,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선 이도흙 한양대 교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이창희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세미나에 대해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국민으로서 평화 유지를 위한 책임이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불교계는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봉행한다”며 “대회의 첫 행사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해소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정부의 천은사 관통도로가 갈등 원인”

### 화엄사 8일 긴급 교구 총회... 규탄 성명 발표

천은사 관통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해당 교구 본사인 화엄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화엄사는 2월 8일 특별교구총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엄사는 성명에서 “정부는 1982년 군사정권 당시 행정 편의를 위해 천은사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수용해 성삼재도로를 개설해 수행환경을 훼손하고도, 해결의지 없이 30여 년을 보냈다”며 “이는 결국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사찰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했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키

워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 같은 역사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채 내려진 판결은 사회공동체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화엄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불법성이 해소된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재구역임장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천명하고 “정부는 불법 행정행위가 초래한 사유권 침해와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 “작은 실천이 자성·쇄신 결사를 완성”

### 자승 스님, 중무기관 신년하례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자성과 쇄신결사의 완성을 위해 주인의 의식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2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7년 중앙총무기관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신년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신년하례를 통해 “중앙총무기관 종무원들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직무를 냉철히 처리하고 동료와 화합, 소통하는 것이 종단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직 종무원들에게 특별



조계종은 2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총무기관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의 결사를 완수하기 위해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지시를 내렸다. 자승 스님은 “종무원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들을 자신의 제직사찰

이나 일선 사찰들에게 제공하라”며 “이들 사찰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하고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하는가에 따라 불교 중흥의 미래가 결정된다. 33대 집행부의 자성과쇄신 결사는 이런 조그마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자신의 실천이 불교 중흥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남의 일처럼 관망하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지원 스님, 기획실장 주경,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일반 재가 종무원이 참석했다.

글=신종일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경색된 남북 관계에도 교류는 지속”

### 민추본, 정기 이사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12년 사업 및 결산, 감사 결과 보고와 올해 주요사업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핵실험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민추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민추본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남북한 실무회담과 합동범회 봉행, 평양불교회관 건립, 대북 인도적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서산대사 제향을 복한 보현사 봉행 사업과 108산사순례단과 함께 하는 신계사 성지순례, 조불련 봉축행사 초청 등도 민추본의 역점 사업들이다.

이와 함께 민추본 이사회는 연임·신임 이사들을 선임했다. 민추본 이사회는 오는 3월 17일 임기 만료되는 당연직 이사 법광 스님(사회부장)과 현 이사 지홍 스님, 혜자스님(도선사 주지), 정념 스님(중앙종회의원),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고유한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연임키로 결의했다.

신임 이사에는 종훈스님(결사총괄부장), 법민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과 김영현 현대아산 관광경험본부장을 선임했다. 신종일 기자

#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몰려다니지 마라”

## 내 삶을 송두리째 깨우는 도법 스님의 죽비소리

### 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지금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위로를 통해 치유하고 희망을 찾겠다는 것은 애연권 처방과 비슷해서 순간적으로 편하고 좋을 수 있으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다른 착각과 환상에 중독되게 합니다. 위로와 치유의 설탕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유랑하고 몰려다니지 마세요. 직시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보면 우리들의 어리석음, 겁 많음, 게으름, 낙약함, 이해타산, 무력감 나아가 누군가가 나서서 내 문제를 잘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의 핑계가 보입니다. 그것을 혁명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큰 용기를 내야, 비로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_서문 중에서 문의 070-7606-7430



화제의 신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 도법 지음 | 다산초당 | 13,000원